

사계절 무한대의 활기찬 여름을 보내고 싶으신가요?
임핑 나이너스터 컨트리 클럽
 ● 광주·동광명IC 구간 광복동원드 산방
 (명절특별행) IC 영수증 프린트 서비스
 ● 우천시 9월 이후 출발요금정산제 실시
 ● 예약: www.hpdyashy.co.kr 0801 320-7700

34km 지점 오르막에서 승부



마라톤이봉주가 다린에서 적응훈련을 하고 있다.

마라톤 이봉주 24일 결전 대비

오늘 베이징 입성...준비 완료



이봉주(38·삼성전자)가 21일 오후 베이징에 도착, 사흘 후 열리는 베이징 올림픽 남자 마라톤을 준비한다. 6월부터 두 달간 일본 홋카이도 전지훈련에서 스피드와 체력을 최대치로 끌어 올린 이봉주는 이명승(29·삼성전자), 김이용(35·대우자동차판매) 등 마라톤 선수들과 6일 다린에 들어와 현지 적응훈련을 치렀고 식이요법으로 24일 결전을 대비해왔다.

삼성전자 육상단 관계자는 “이봉주가 오후 4시 베이징에 도착해 곧 선수촌으로 이동한다. 식이요법은 21일 아침 끝날 예정으로 사실상 준비는 다 마쳤다”고 말했다.

이봉주는 17일 끝난 여자 마라톤 결과를 보고 전략을 약간 수정했다. 오인환 삼성전자 육상단 감독과 이봉주는 베이징의 날씨가 생각보다 덥지 않아 더위가 전혀 변수로 작용할 수 없다고 판단, 중반까지 선두권을 유지하되 30km 이후 지점부터 스피드를 낼 계획이다.

삼성 관계자는 “여자 마라톤 때는 20km 지점까지 40여명의 선수들이 선두권을 형성했다. 아무래도 올림픽이라는 심리적인 부담감 탓인지 먼저 치고 나가는 선수는 없었다. 남자부는 상황이 달라도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나 일단 이봉주도 선두권과 보조를 함께 하면서 상황을 봐가며 스피드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봉주는 지난해와 4월 텐안먼 광장을 출발해 주경기장인 ‘귀자티위장’(國家體育場)을 들어오는 42.195km 풀코스를 두 차례 답사했다.

4월에는 오 감독의 지시에 따라 조그맣게 천천히 뛰어 2시간23분58초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승부처는 34km 지점에 위치한 약간 오르막 경사를 삼고 있다.

더위가 사그라지면서 우승자 예상 기록도 2시간8분대에서 조금 더 단축될 전망이다.

마라톤에는 2006 도하 아시안게임 우승자로 올해 2시간8분23초를 뚫 무바라크 하산 샤미(28·카타르)를 비롯해 4월 런던 마라톤에서 2시간5분대 기록을 작성한 마틴 펠(30), 사무엘 완지투(22·이상 케냐) 등 강호가 대거 출전한다.

이봉주의 최고기록은 8년 전 도쿄마라톤에서 세운 한국기록 2시간7분20초. 첫 출전이던 1996년 애틀랜타올림픽에서는 은메달을 목에 건 이봉주가 4회 연속 출전하는 이번 올림픽에서는 어떤 성적을 남길지 관심이 모아진다. /연합뉴스

한국 장원삼 완봉투...7전 전승

네덜란드에 10-0 콜드승...‘퍼펙트 금’ 도전



야구

8년 만에 올림픽 메달을 노리는 한국이 2008 베이징올림픽 본선 풀리그를 7전 전승으로 통과했다.

한국은 20일 베이징 우커송야구장에서 열린 야구 본선 풀리그 네덜란드와 7차전에서 이대호의 2점홈런 등 16안타 맹폭을 퍼부은 끝에 10-0, 8회 콜드게임승을 거뒀다.

전날(19일) 쿠바를 꺾고 1위로 4강 진출을 확정된 한국은 풀리그 마지막 상대까지 꺾고 전승 기세를 이어가 ‘퍼펙트 금메달’ 위협 달성도 노려볼 수 있게 됐다. 1승5패로 이미 예선 탈락이 확정된 네덜란드는 우승 후보 한국의 상대가 되지 않았다.

1회 초 이용규의 우전 안타에 이은 이대호의 중월 2점 홈런으로 일찌감치 기선을 잡은 한국은 5회 이택근의 솔로포로 3-0으로 앞서갔다. 이어진 2사 후 공격 기회에서 김민재의 볼넷에 이어 이종욱, 이용규, 김현수, 이대호의 연속 4안타로 3점을 더 뽑았고, 6회와 7회 2점씩을 보냈다. 네덜란드 타선은 한국 선발 장원삼의 구위에 놀려 7회까지 2루도 밟지 못하는 무기력한 공격을 펼쳤다. 장원삼은 8이닝을 4안타, 무실점으로 막아 완봉승을 거뒀다.

김경문 감독은 22일 준결승전을 앞두고 장원삼의 완봉에 힘입어 마운드의 힘을 비축했고, 이승엽(32·요미우리 자이언츠)도 선발 명단에서 뺀 채 컨디션을 조절하게 했다.



20일 베이징 우커송야구장 메인필드에서 열린 한국-네덜란드전에 서 한국 선발투수 장원삼이 8회말 힘껏 공을 던지고 있다. 한국이 8회 10-0 콜드게임 승을 거뒀다. /연합뉴스

한국에 ‘뺨’ 맞은 쿠바, 중국에 ‘화풀이’

장단 20안타 폭발...17-1 콜드 승

아마야구 최강 쿠바가 중국을 상대로 올림픽 단일경기 최다 안타 타이 기록을 세우

며 한국전 패배를 분풀이했다.

쿠바는 20일 베이징 우커송 야구장 제2필드에서 열린 베이징 올림픽 야구 예선 풀리그 7차전 중국과 경기에서 홈런 3방을 포함해 장단 20안타를 몰아치며 17-1로 7회 콜드

승을 거뒀다. 올림픽 야구에서 한 경기 20안타가 나온 것은 쿠바가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과 1996년 애틀랜타 대회에서 기록한 뒤 이번이 4번째다.

0-0으로 맞선 2회말 지오비스 두 베르젤의 만루 홈런 등으로 대거 9점을 올린 쿠바는 3회부터 6회까지 매 이닝 점수를 추가하며 약체 중국을 상대로 여유있는 경기를 펼쳤다.



러시아 듀오 환상의 ‘금빛 연기’ 20일 중국 베이징 국가아쿠아틱센터에서 펼쳐진 2008 베이징올림픽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듀오 결승에서 49.917점으로 금메달을 차지. 대회 2연패를 달성한 세계 최강 러시아 아나스타샤 다비도바와 아나스타샤 에리코비치가 멋진 연기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노르웨이 꺾고 결승 가자”



핸드볼

‘20년 전 서울과 16년 전 바르셀로나를 기억하라’

여자핸드볼이 2008 베이징올림픽 ‘금빛 우승순(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만들기에 앞서 중대한 고비를 만났다.

임영철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21일 오후 7시(한국시간) 중국 베이징 국가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여자 핸드볼 4강전에서 유럽의 강호 노르웨이와 결승 진출을 다툰다.

2006년 유럽선수권대회 챔피언 노르웨이는 이번 대회 조 편성부터 작년 세계선수권대회 우승팀 러시아와 함께 1번 시드를 배정 받은 팀. 한국은 노르웨이와 올림픽, 세계선

여자부 4강전 오늘 오후 7시

수권대회에서 11차례 만나 5승6패로 전적이 약간 달리지만 올림픽에서 만큼은 확실한 우세를 점하고 있다.

1988년 서울올림픽 준결승에서 노르웨이와 맞닥뜨려 23-20으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 1992년 바르셀로나에서는 조별리그에서 27-16으로 대파했고, 결승에서 또 만나 28-21, 7점 차로 여유롭게 이겨 2회 연속 정상을 밟았다.

4년 뒤 애틀랜타대회에서도 한국은 노르웨이와 조별리그 대결에서 25-21로 승리했다. 2000년 시드니대회 동메달 결정전에서 21-22로 진 것이 유일한 올림픽 패배다.

그래도 절대 만만하 볼 팀은 아니다.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준결승에서 24-35, 11점 차로 대패했다.

그만큼 전력이 최상에 올라왔다는 얘기가 조별리그 A조에서도 노르웨이는 5전 전승으로 조 1위를 차지했다.

높이와 힘을 앞세운 플레이를 한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유럽 팀이지만 스피드도 만만치 않아 막아내기가 쉽지 않다. 또 골잡이가 한 두 명으로 국한돼 있는 것이 아니라 7~8명의 주전들이 고르게 득점에 성공하고 있다는 것도 어려운 점이다.

그래도 한국은 자신감이 넘친다. 금메달을 목표로 한 대표팀은 노르웨이와 준결승 또는 결승에서 만날 것을 대비한 훈련에 시간을 많이 할애했다.

당·예·서 16강 실패



탁구

여자 단식...김경아는 日 꺾고 16강행

“단체전 동메달을 따고 마음이 너무 풀렸던 것 같아요. 내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메달을 꼭 목에 걸 수 있도록 준비할게요.”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여자탁구 당예서(27·대한항공·사진)가 평텐웨이(싱가포르)에게 0-4로 져 단식 16강 진출에 실패한

뒤 아쉬움과 함께 제도전 의지를 드러냈다.

20일 베이징올림픽 탁구 여자단식 3회전(32강)이 열린 베이징대 체육관. 당예서는 단체전 준결승에서 패배를 안겼던 평텐웨이와 외나무 다리에서 다시 만났다.

평텐웨이는 단체전 1단식에서 당예서를 3-0으로 완파하고 게임 스코어 2-2로 균형을 이룬 최종 5단식에서도 박미영(삼성생

명)을 3-1로 따돌려 싱가포르에 48년 만에 올림픽 은메달을 선사했던 인물. 세계랭킹 26위 당예서로선 세계 9위 평텐웨이보다 가벼운 상대였다.

현정화 코치가 벤치를 지킨 가운데 당예서는 실책을 다짐했지만 테이블에 바짝 붙어 포어핸드와 백핸드 드라이브를 실 새 없이 퍼붓는 평텐웨이에게 고전했다.

승부는 일찌감치 갈렸다. 그는 첫 세트 먼저 두 점을 잃고 좌우 구석을 찌르는 드라이브 공세로 1점을 만회했지만 평텐웨이는 빠른 백핸드 드라이브로 허점을 파고들었다. 점수는 순식간에 1-7로 벌어졌고 뒤에는 추격에도 간격을 좁히기에는 역부족이었다. 2세트도 2-1 리드로 출발했음에도 평텐웨이의 거센 반격에 추월을 허용했고 결국 5-11로 내렸다.

한편 김경아(31·대한항공)는 20일 탁구 여자단식 3회전(32강)에서 일본의 후쿠오카에게 4-2(11-9, 14-16, 12-10, 12-14, 11-9, 11-7)로 승리를 거둬 16강에 진출했다.